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29. 산 마르틴 다리를 지나 톨레도의 중심으로

질푸른 강물이 팔팔 흐르고 있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제일 긴 강으로 서쪽으로 흐르다가 대서양으로 합쳐지는 타호강이다. 톨레도를 감싸며 흐르는데 강 양쪽으로 솟아 있는 언덕에 현대적인 건축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돌로 만든 옛 다리가 양 언덕을 이어주고 언덕 위에는 역시 돌로 만든 옛 성곽의 자취들이 남아 있었다. 마치 시간의 창을 통해 수백 년이 흐르도록 바뀌지 않는 중세 시대의 톨레도 풍경을 보는 것만 같았다.

"여러분, 지금 밖에 보이는 저 석조 다리는 산 마르틴 다리입니다. 14세기에 서쪽 방향으로부터 톨레도의 옛 시가지로 들어가는 지점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마르틴 다리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모두 고개를 빼고 700여 년 전에 세워진 돌다리를 내다보았다. 관광버스는 아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할머니 가이드는 먼저 스페인어로 전설을 이야기 해 주었다. 스페인 관광객들이 탄성을 지르며 감탄하니까 너무 궁금해졌다. 스페인어 안내가 끝나자마자 가이드는 R과 나를 쳐다 보면서 영어로 안내를 시작했다. 14세기에 다리를 완공하고 개통식을 하게 되었다. 개통식에는 당시 톨레도의 일대폰수스 주교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개통식 전날 밤에 다리를 설계한 건축가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건축가는 부들부들 떨면서 사실을 털어 놓았다. 치명적인 계산 실수로 다음날 개통식 때 지지대를 치우면 다리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이라던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다리가 무너지면 일대폰수스 주교와 모든 참석자들이 강으로 떨어질 것이고 자신은 큰 벌을 받든지 아니면 다시는 일을 못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건축가의 아내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공포에 질린 남편을 잘 달래어 잠들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밤중에 집을 나와 완공된 다리로 달려가서 불을 질러 버렸다. 불타버린 다리는

다시 지어지게 되었고 큰일날 뻔했던 건축가는 이번에는 실수없이 다리를 잘 완공해 불명예를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세워진 산 마르틴 다리는 16 세기에 탑을 세워 더 튼튼하게 보강했으며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정말 확실하고 화끈한 스페인 스타일 내조였구나 생각하며 산 마르틴 다리 전설을 재미있게 들었다. 영어 설명이 끝나자마자 가이드는 쉬지도 않고 이탈리아 버전으로 넘어갔다. 지나가면서 본 산 마르틴 다리는 정말 단단하게 생겼으며 톨레도 시로 들어가는 아치형 입구가 높은 탑 아래 보였다. 타호강을 내려다보며 걸어서 그 다리를 건너 톨레도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산 마르틴 다리 전설을 한바탕 풀어 놓은 할머니 가이드는 이제 톨레도 시 중심으로 들어간다고 안내했다. 톨레도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언덕 위를 향해 '언덕' 이라 하기에는 꽤 높았고 '산' 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았다) 구비구비 올라가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를 태운 관광버스는 강변 도로를 따라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일일 관광을 예약했을 때는 가격이 아주 저렴해서 그냥 버스에 태워가 톨레도에 내려주었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마드리드로 태우고 오는 단순한 일정인 줄 알았는데 꼼꼼한 가이드의 안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톨레도를 한 바퀴 도는 것이 뜻밖이었다. 게다가 버스에서 내려서도 가이드와 함께 톨레도를 둘러 본다고 하니 매우 가성비 좋은 일일 관광이 아닐 수 없다. 내심 흐뭇해 하고 있는데 할머니 가이드의 영어 안내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밖으로 보이는 것들의 설명을 동시에 3개 국어로 되풀이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스페인어로 하고 영어 다음에 이탈리아어로 하고 있을 즈음이면 이미 설명의 대상이 오래전에 지나가 버려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된다. 우리는 스페인어를 주의 깊게 들으며 눈치로 짐작하기로 했다.

21세기의 시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중세 도시의 모습을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그 옛날 톨레도에 공존하던 카톨릭,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 문화에 대한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동안 버스는 꽤 높이 올라온 것 같았다. 점점 하늘이 가까워진 것 같고 뭔가 뻥 뚫린 느낌이 나는가 싶었는데 우리를 태운 버스가 정차했다. "여러분, 여기 전망대에서 5분 쉬겠습니다. 잠시 둘러보고 버스로 돌아오세요." 가이드의 말을 들으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내 눈 앞에 엘 그레코의 '톨레도의 풍경' 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aga 처방약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2000/yr)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한 분
- ★ Part B 보조 (\$125/mo.) (\$148.50-\$125 = \$23.50 만 냄)
- ★ Flex Card (\$500), Grocery (\$50/mo), OTC (비처방약커버) 안경, 운동, 침술, 치과, 보청기, 발치료, 교통편제공 해외여행 중 응급치료, 등등 (회사마다 조금씩 다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로 모든회사를 취급하며 손님에 맞는 적합한 선택으로 비교해 드리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용접 및 하우스 리모델링
모든것 해결해 드립니다

철대문 제작/설치 및 펜스 설치
녹슬어 떨어지거나 망가진 곳
플러밍, 페인트, 타일, 에어컨
LED Light, Slipfence
하우스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Metal Door, 콘크리트, 방범창살, 핸드레일

SK 핸디맨 펜스/플러밍/리모델링
909.969.3669

COVID-19 PCR 음성 확인서
\$60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서 발급!**

그리운 고국에 가시려면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후 48시간 이내 발급해 드립니다.

코로나 -19 무/료/검/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제 4차 대유행이 예상됩니다. 정기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LIA 인증 CrestView Laboratory와 손잡고 무료로 코로나-19를 검사해 드립니다.

코로나 -19 항/체/검/사
10명 이상 단체, 직장에 직접 방문하여 PCR검사와 Anti-body 검사를 무료로 해 드립니다. (단, Anti-body 검사는 건강보험, 메디케어, 메디칼 소지자에 한해 무료 검사해 드립니다. 예약 시 자세한 사항 문의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셨지만 항체 (Anti body) 가 형성되지 않으면 Covid-19로 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백신을 접종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Anti-body 검사를 받아보세요.

캐롤 박 (213) 999-1633 **애너하임 나눔종합병원**
6281 Beach Blvd. #19, Buena Park, CA 90621 3012 W Orange Ave. #409, Anaheim, CA 92804